

# 크리스마스의 낭만이



# 사라진다



'2021년 기상청 기후변화 분석 경진대회  
'장려상 소복소복팀의 자료로 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하면 뭐가 떠오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도

산타, 선물, 눈,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들을 떠올리겠지?

하지만 기후변화가 계속 된다면

미래의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겪어왔던 크리스마스와는

**아주 달라질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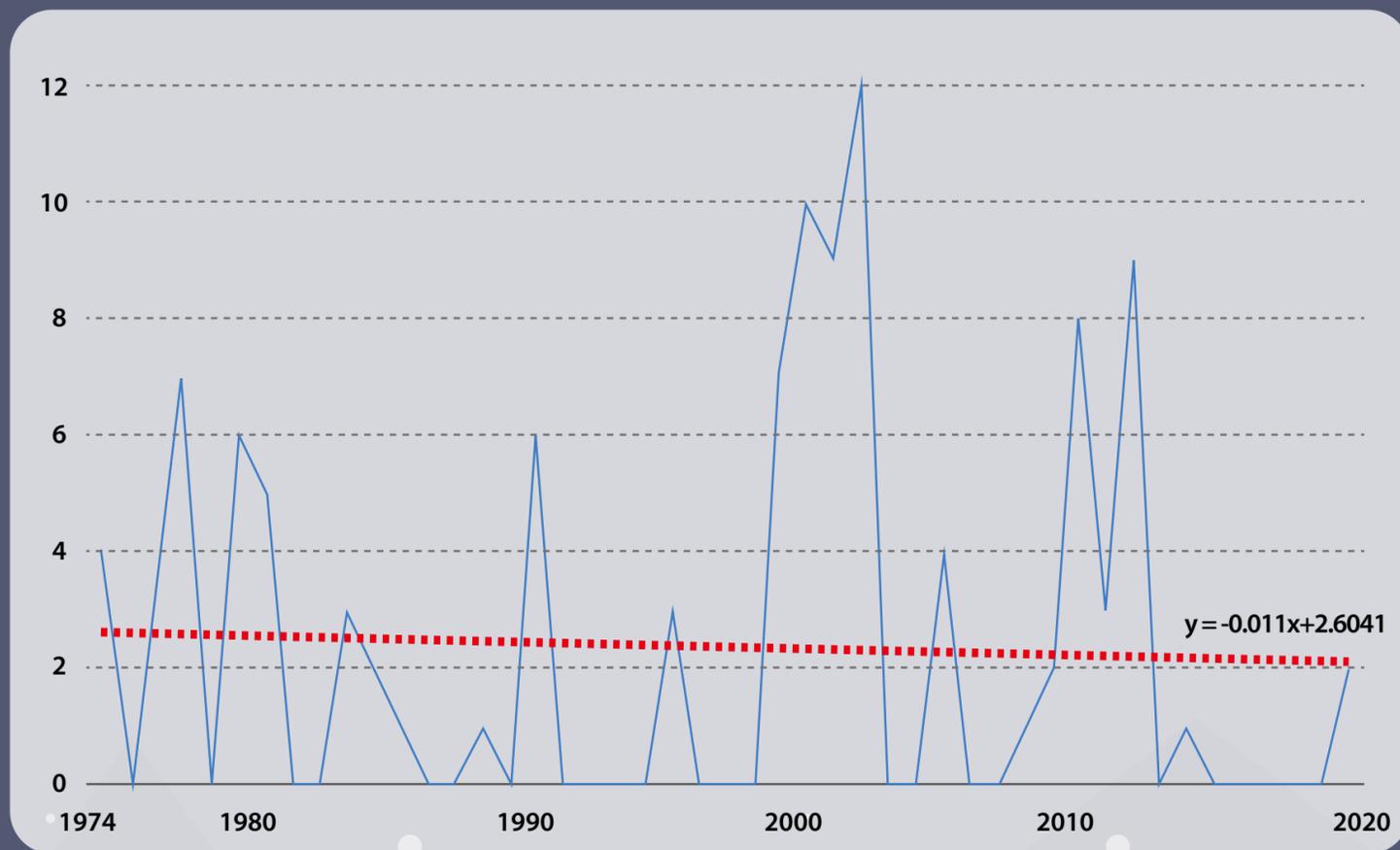


**크리스마스 하면  
로맨틱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

**하지만  
미래의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눈이 없을 수도 있어.**



# 먼저 과거 우리나라가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던 날을 알아볼까? 12월 25일의 신적설량이 있었던 날을 조사해보면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



크리스마스(12.25.)에 눈이 온 지역 수(1974~2020년, 18개 지역)

18개 지역: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춘천, 강릉, 수원, 진주, 포항, 울릉도, 여수, 목포, 전주, 서산, 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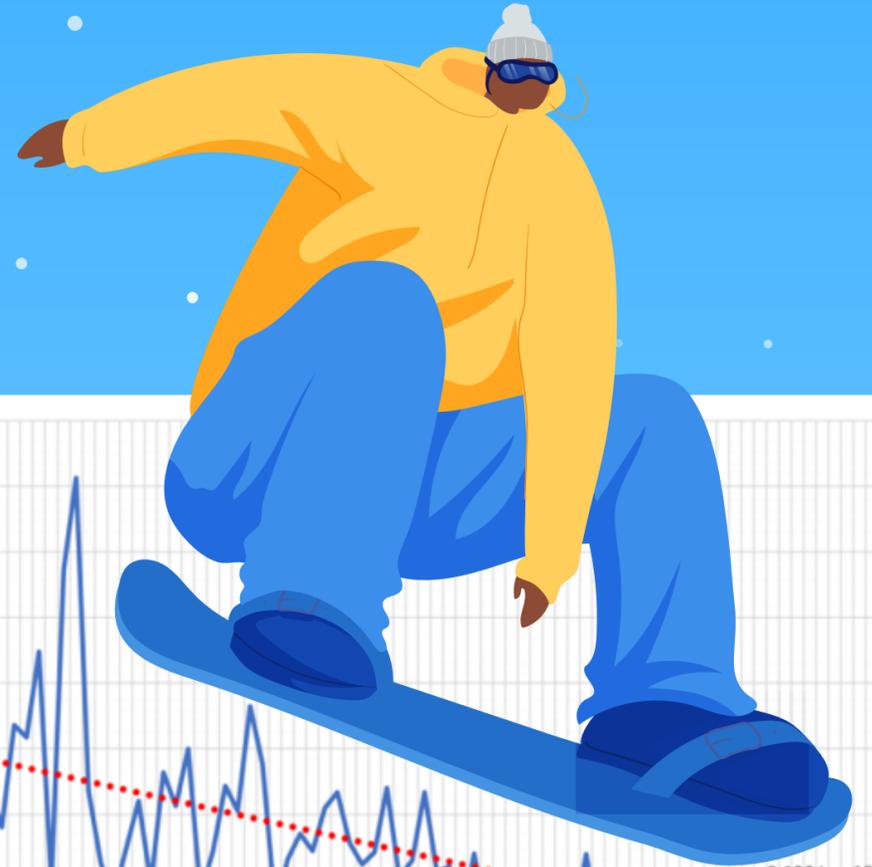


# 그러면 결빙일수로 미래 전망을 알아볼까?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의 시나리오(RCP 4.5)와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추세대로 유지되는 경우의 시나리오(RCP 8.5)를 비교해 보자



18개 지역 미래시나리오 결빙일수(일) RCP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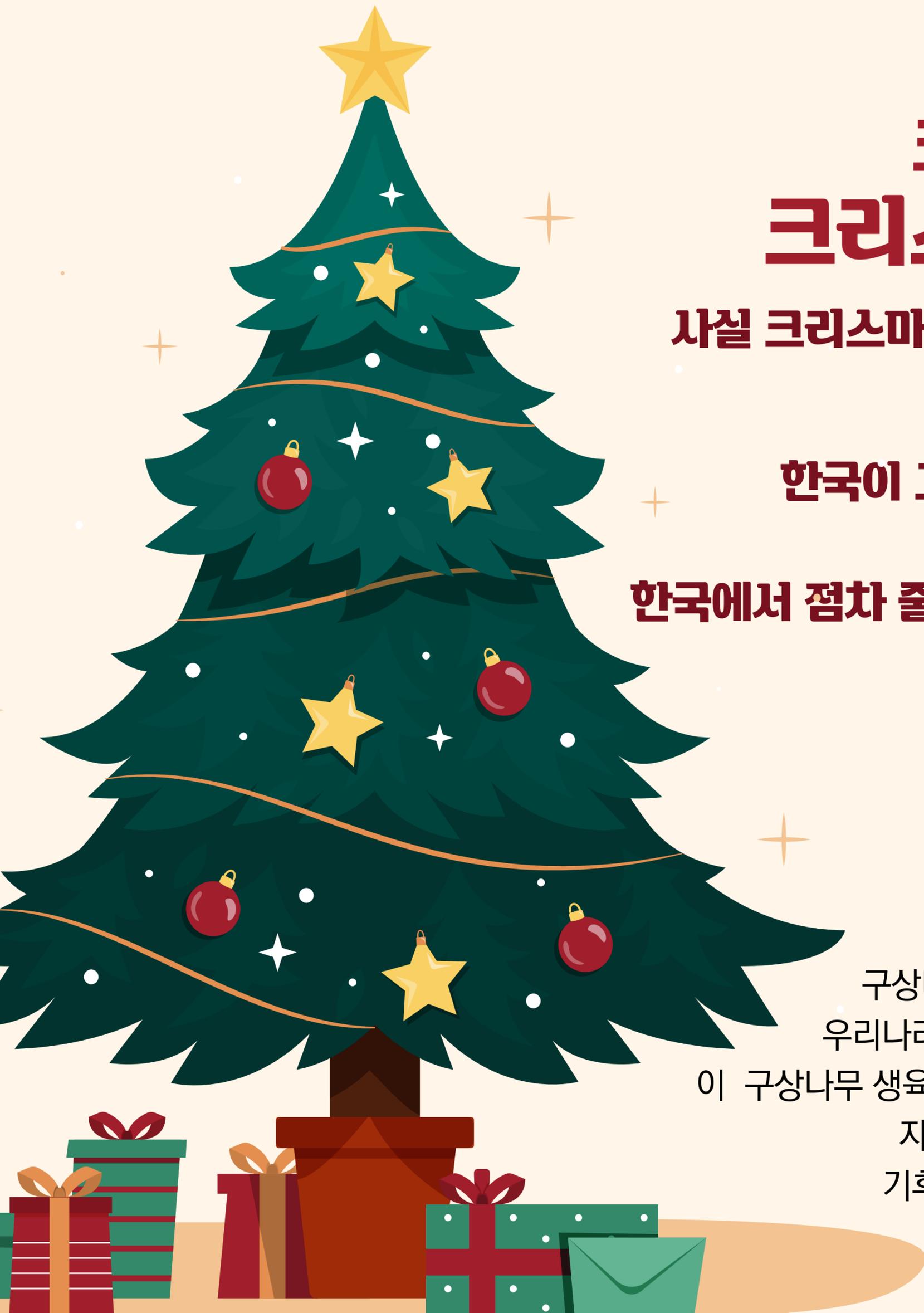


18개 지역 미래시나리오 결빙일수(일) RCP8.5

먼저 결빙일수란

일 최고 기온이 0°C 이하인 날의 수를 의미해. 두 시나리오 모두 결빙일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더욱 큰 폭으로 떨어져 2090년 이후에는 없어지지?

결빙일수가 줄면 자연스럽게 눈 내리는 날도 줄게 될 거고, 크리스마스에 내리는 눈은 더더욱 보기 힘들게 될 거야.



그것 뿐만이 아니야.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

**사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주로 쓰이는**

**구상나무는  
한국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이 구상나무가  
한국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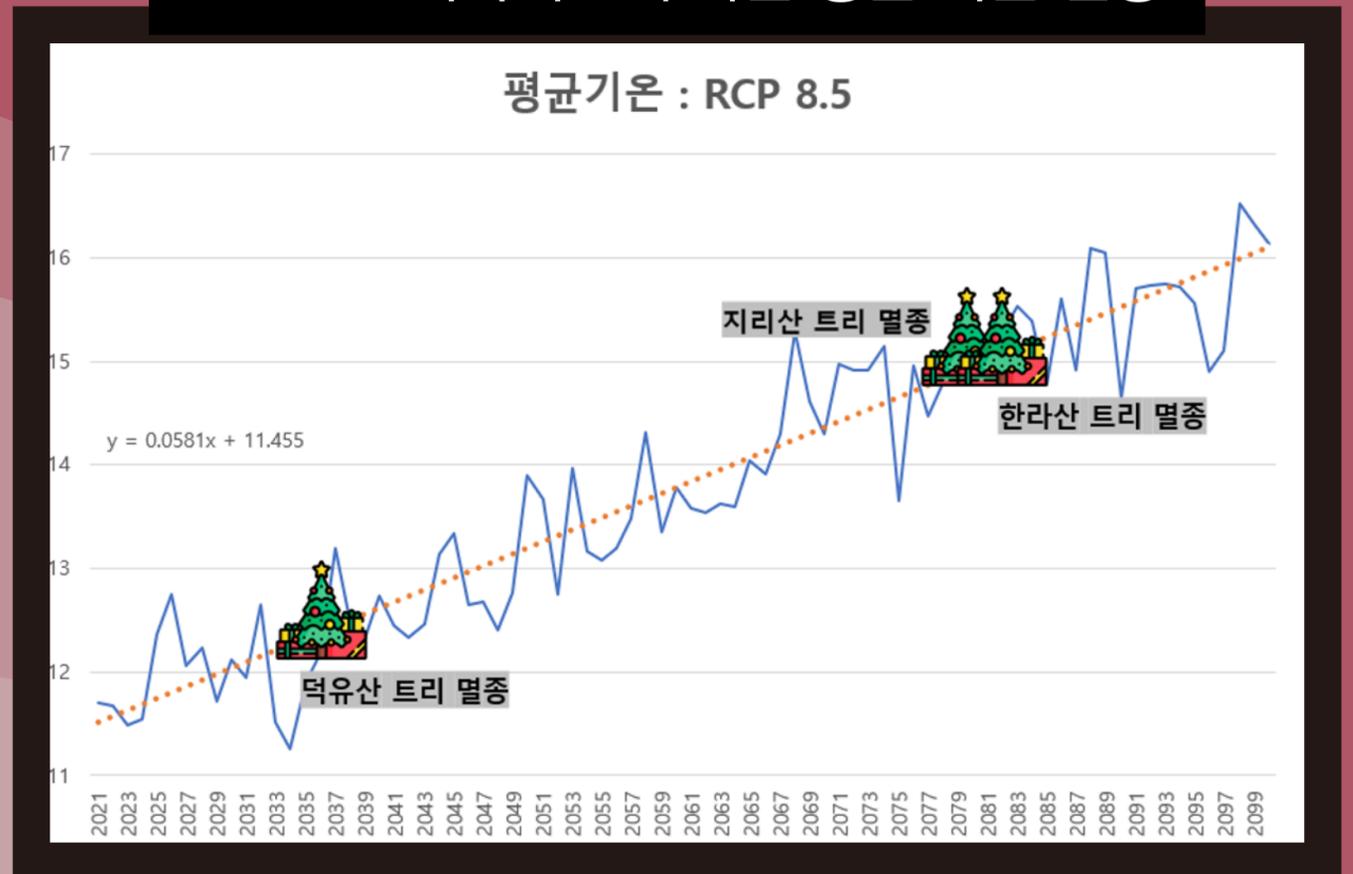
구상나무는 소나무과 전나무속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고유종이야.  
이 구상나무 생육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생지의 **기온**과 토양내 **수분**이  
기후변화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멸종이 가속화 되고 있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구상나무는 지리산, 한라산, 덕유산 등을 중심으로 군락을 지어 자생하고 있어. 만일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RCP8.5 시나리오 대로 진행된다면 지리산(1,915m)과 한라산(1,947m)의 구상나무는 2080년에, 덕유산(1,614m)은 2030년에 구상나무가 멸종하게 될 거야!

### RCP8.5 시나리오에 따른 평균 기온 전망



※구상나무 자생지 해발고도는 약 1,500m 이며, 1°C 상승 시 자생지의 고도가 150m 상승함을 고려



**기후변화는 이렇듯 우리 생활에  
깊게 스며들어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  
화이트크리스마스나 구상나무 외에도  
당장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게 될 거야.**



**'더 늦기 전에'**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주립주간(12.6.~12.10.),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지금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지키자.**

더 자세한 설명을 알고 싶다면  
기후정보포털에 방문해봐!

기후정보포털: [www.climate.go.kr](http://www.climate.go.kr)

